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학에 대하여

개요

1. 서론

- 문학의 정의와 범주
-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학

2. 본론

- 영향력을 미친 국내외 문학의 예시
 - (1) 국외
 - (a) 셰익스피어의 4대비극
 - (b) 해리포터
 - (c) 종의 기원
 - (2) 국내
 - (a) 운수 좋은 날
 - (b) 동백꽃

3. 결론

- 문학의 아름다움

서론

살아가면서 문학에 대하여 깊게 생각 해 본 적이 있는가? 멀게만 느껴지는 ‘문학’이란 말과는 다르게 문학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문학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문학의 사전적 의미는 삶의 가치 있는 경험을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언어로 짜임새있게 표현한 예술이다. 그 갈래는 크게 서정, 서사, 극으로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 교술을 추가하기도 한다. 시, 소설, 희곡, 수필은 그 각각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그 언어를 매체로한 예술로 광대한 범주의 예술을 포괄하고 있다. 문학은 매우 큰 범위와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과학과 같이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문학 비평가들이 흔히 정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학이란 문자로 기록된, 형식이나 체계가 존재하는 글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발표한 것¹이다.

문학은 작가의 사상을 온전히 들여다 보는 개념이라 기쁨과 슬픔, 아름다움 등의 감정 따위를 따르고 이 감정 자체가 바로 문학의 특색이다. 문학은 어떠한 사물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또한 문학은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서적이다. 문학 예술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 만약 독자가 소설을 읽을 때, 소설에 나오는 자신과 비슷한 면이 있는 주인공, 또는 어딘가 결핍되어있는 등장인물의 성장을 보며 동정, 동감하며 자신이 그 소설에 융화되어 몰입하는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소설이 아닌 다른 산문 또는 시 수필 등을 읽을 때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점, 경험에 보지 못한 분야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나가며 이를 충족할 수 있다. 순수하게 글에서만 우리나라의 문체의 아름다움, 단어의 아름다움, 문장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치유할 수도 있다.

¹ 이광수, 문학이란 하오, 온이퍼브, 2021, p66

이 외에도 문학의 잘알려진 장점들을 열거하자면 문학을 읽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 물정을 헤아릴 수 있다. 문학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시간을 넘나들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계급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문학을 경험하며 독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동정하게 된다. 악한 사람이 퇴보하는 경로를 보고 거울을 삼아 그 경로를 피하고, 사람이 진보하는 심리 상태를 보고 모범을 삼아 더 발전할 수도 있다. 현 사회를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능력으로는 경험하지 못할 지금껏 알지 못했던 인생의 방면, 각종의 생활과 사상과 감정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문학을 애호하는 습관을 기르면 유해한 오락에 빠지지 않아 도움이 되며 삶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심어주고, 선량한 문학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심대한 교훈을 전해서 품성을 닦고 지능을 개발하게 된다.

여기서 선량한 문학은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가. 문학은 진보하는 한 시대의 사상과 감정과 생활 방식을 민족의 문학자들이 갈고 닦고 수련한 결과다. 또한 이는 유산으로 여겨져 다음 대 사람들이 보충해나가고 그 질을 높여나가는 중요한 개념 그 이상인데 이러한 문학을 선량하다. 또는 악하다. 이렇게 개인의 생각으로 취급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비운의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하고 극적이게 성공하는 스토리의 아름다운 성장 소설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소설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주인공도 말도 안되는 사건을 겪고 엄청난게 성장하는데 나는 여기서 멈춰있다는 사실에 절망감과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비하를 하며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고 희망을 가져서 책이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독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듯 문학은 자신의 배경지식, 살아온 배경, 가지고 있는 생각, 읽을 때의 고민, 심정 등에 따라 사람마다 받아들여지는 메시지도 다르고 그로인해 맺는 결과도 크게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읽은 책을 평가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쁘지 않은 책이었네, 혹은 읽은 게 시간 낭비였던 책이었네' 따위의 생각만 하며 스쳐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책에 큰 감명을 받아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책을 추천하고 책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니며, 일상 생활에서도 충분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다.

좋은 문학은 책을 읽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 평생 게으르게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며 산 사람이 한 부자의 자신이 돈을 번 방법, 자기 관리를 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집필한 책을 읽고 자극을 받아 주변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는 그 게을렀던 사람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책을 쓴 부자가 사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였고 거짓으로 책을 지어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책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모호하고도 완벽하게 정의내리기 불가능에 가까운 문학이지만서도, 사회에서 흔하게 평가되는 좋은 문학, 나쁜 문학은 존재하는 법이다. 여기서 좋은 문학이란 인간-책을 읽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문학을 지칭하는 것일 테고, 나쁜 문학은 질이 좋지 않은 문학, 책을 읽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문학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문학 예술을 읽은 사람이 책 속 등장인물의 지나치게 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불쾌감을 가졌다고 해서 이 문학이 나쁜 문학이라고 단정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 삶에서 문학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과 좋은 영향이던 나쁜 영향이던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문학의 이중성,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모두 잘 들여다 보고 곱씹으며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보다 더 완전하게 문학을 즐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류에 좋은 영향을 끼친 문학과 나쁜 영향을 끼친 문학의 시대별 예시를 알아보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영향력을 미친 국내외 문학의 예시

(1) 국외

(a)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먼저 우리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준 문학 작품은 각 나라, 지역, 공동체, 사람 별로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도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문학을 하나 예를 들자면 단연 영국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다.

‘셰익스피어를 식민지였던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라는 말도 존재할 만큼-사실 앞의 말은 토머스 칼라일의 영웅 숭배론 중 “영국이 인도는 언젠가 잃게 되겠지만, 셰익스피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이 와전 된 것이다. 비슷한 말로는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닌, 오직 셰익스피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영어는 익혀둘 만한 언어다.”가 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400여 년 전의 문학이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조명받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말이 있지만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예술적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영국이 얼마나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가치를 자랑스러워 하는지는 런던 올림픽에서 행한 퍼포먼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사진1 - 2012 런던 올림픽 개막식 장면〉

위 사진은 런던 올림픽 개막식 행사 사진으로 영국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 유산, 디지털 시대와 미래를 표현한 사진이다. 영국이 개막식에서 스토리라인의 핵심 코드로 셰익스피어를 선정한 것은, 영국의 문학적 정체성의 근간이 셰익스피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2년 개막한 런던 올림픽은 문학과 대중음악을 핵심적으로 개막식 스토리라인을 선정했으며, 세 번째 개최한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셰익스피어와 팝의 전설 비틀스를 전면내 내세워 근현대사를 재조명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The Tempest’의 대사 “두려워하지 마라. 영국이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할 것이다.”가 적힌 23t 대형 올림픽 벨이 울리며 개막식은 성대한 막을 올렸다².

셰익스피어의 문학과 같은 고전 문학은 현 시대에서는 그 시대의 시대상과 삶의 모습, 과거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당시 향유했던 문화의 양상을 알 수 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과거의 문학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위의 문구에서 역사는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학은 작품 속 등장인물의 생각과 대사가 작가 또는 그 시대의 모든 사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² <한국경제>, 스포츠 뉴스, <https://www.hankyung.com/sports/article/201207280451g>

4대 비극-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에서 주인공들의 특징은 성격 상 결함을 가지고 있고 결함으로 인해 비극이 전개된다. 햄릿은 우유부단, 리어왕은 교만, 오셀로는 질투, 맥베스는 야망. 우리는 4대 비극을 읽음으로써 각각 우유부단하고, 교만하고, 질투심이 많고, 야망있는 주인공들을 보며 그들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한다. 물론 문학 자체의 아름다움과 흥미를 즐길 수도 있다.

(b) 해리포터

영국이 사랑하는 또 다른 유명한 베스트셀러는 바로 해리포터이다. 해리포터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크게 흥행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책으로는 전세계 79개 언어로 번역 되어 약 5억부 이상의 판매 부수를 자랑할 정도로 영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열광한 작품이다.

해리포터와 같은 판타지 소설에서 보자면, 이 갈래의 문학은 책을 읽는 사람들을 울고 웃고 몰입하게 한다. 책을 읽고 감명을 받는 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덕질³까지 할 정도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소설의 굿즈를 사고, 소설을 2차 창작하는 등 문학을 한 갈래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학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해리포터가 한국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신간이 나오는 족족 일주일만에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20주년 기념 개정판이 무수한 긍정적 반응을 받으며 꾸준히 판매되는 것을 보며 알 수 있다.

해리 포터와 같은 소설은 출간된 지 20년이 지나도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다. 때문에 청소년 시절 해리 포터에 빠져든 1세대들이 부모가 되어 자녀들도 대를 이어 해리포터 키즈가 되고,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독자층이 생겨난다. 소설을 읽는 동안 사람들은 책을 삶의 낙이라고도 여길 수 있고, 마음의 빈 곳을 채워 넣는 등 시련을 극복 할 수 있다.

국내 도서 판매 사이트	평점 (10점 만점)
인터파크	9.9
알라딘	8.9
Yes24	9.6
교보문고	9.7

<표 1 - 해리포터에 대한 긍정적 반응 사례>

³ 덕질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이르는 말로 일본의 오타쿠에서 파생된 현대 신조어이다.

해리포터를 향한 한국 대중의 긍정적 반응은 여러 책 판매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해리 포터 20주년 기념 개정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에 대한 네 군데의 국내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의 평점은 평균 9.5점으로 높은 수치이다. 리뷰들 중에서도 아쉬움을 나타내는 후기들은 번역체라든지 책에 난 흠집에 대한 것이었다. 스토리에 대한 내용은 모두가 입을 모아 극찬한다. 흡입력 있는 줄거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겠다는 평이 다수이다.

yes 24의 한 구매자는 이런 평을 남겼다. “해리포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도 해리포터를 많이 들어봤고,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소설로 접하는 건 처음이었다. 과연 최고의 소설이라는 칭호가 맞는 소설일까?라고 생각하며 책을 딱 펼쳐보았다. 그리고… 난 세계 최고의 소설이라는 칭호를 인정하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전개도 너무 깔끔하고 무엇보다 엄청난 흡입력으로 인하여 읽는 내내 책 속에 확 몰입 되어 있었다. 또 다른 구매자가 남긴 평은 이렇다. “거의 20년 전 대학생 때 봤던 영화를 초등학생 아들과 다시 봤는데, 너무 재밌어하며 책도 읽어 보고 싶다 하여 시리즈 첫 편 ‘마법사의 돌’ 1, 2권을 구매했습니다. 영화에선 볼 수 없었던 세세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읽어보니 역시나 몰입감이 최고네요. 다음 시리즈 ‘비밀의 방’ 구매하러 갑니다.

이렇듯 독자들이 직접 남긴 후기를 보면 해리포터가 우리 사회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c) 찰스 다윈 <종의 기원>

앞에서 다른 내용과 같이 도움이 되는 문학이 존재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반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문학 또한 존재한다. 안 좋은 세상의 것들을 포장하여 아름답게 표현한 문학은 나쁜 것들을 선하다고 착각하게 한다. 이에 해당하는 문학은 사람의 정신 건강을 해롭게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품게 할 수 있다.단순히 그른 생각과 정신을 품게 하는 정도는 별 것 아니라 생각될 수 있지만 사람의 작은 생각 하나가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 명명하게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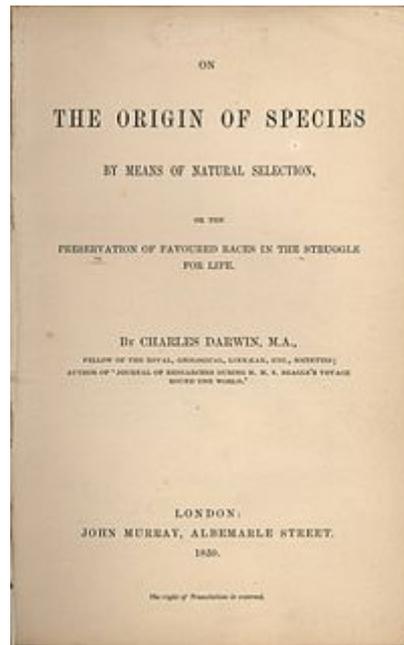
그러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문학은 굉장히 모호하고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별에 따라, 문화에 따라, 특히 자아가 얼마나 형성 되었는지, 나이에 따라 아주 다르게 판단 될 수 있다.

그에 대한 예시가 바로 관람 등급의 설정이다.⁴우리나라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는 내용과 표현 정도 -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표현 정도를 고려-에 따라 5개 등급제로 분류된다.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된다. 정신이 건강한 성인이 감상하기에는 큰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이상과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반면, 동일한 영화를 특정 나이 이하의 유아가 감상하기에는 부적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자아와 감각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영유아들은 같은 매체에 노출되어도 영향 받는 범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에게 충격적인 영향을 끼쳤던 문학은 분명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종의 기원이다. 위대한 과학적 성과들은 모두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깨면서 등장하곤 했다. 그 때마다 가설들은 매 번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새로운 시선을 주고, 기존의 이론과 마찰과 갈등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파장과 반발을 우리에게 안겨준 문학이 바로 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⁵<종의 기원에 대하여>는 찰스 다윈의 저술로서 1859년 11월 24일에 출판 되었고, 진화생물학의 토대로 여겨지는 과학문헌이다. 자연선택을 통한 종의 진화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 종의 기원 초판은 1500권이 제작되었고, 하루 만에 다 팔렸다.

⁴ 대한민국 경찰청 네이버 블로그

⁵ 위키 백과 - 종의 기원



〈사진2 - 종의 기원 초판(1859년)의 속표지〉

종의 기원이 발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절대신의 창조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당시 종교는 절대적이었고 반박할 수 없었다.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현재까지도 진화론과 창조론은 끊임 없는 논쟁과 갈등을 가지며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고,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알팍한 증거를 가진, 지금에 와서 재평가 되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설'일 뿐인 진화론을 교육받게 하였다. 파생되는 혼란과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부가적인 것이었다.

이외에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문화 지향성을 막는 문학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악한 생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으려 하는 문학이 아니더라도 작가 자신의 고정관념을 은근히 내비치는 문학은 책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좋은 문학이라고는 판단될 수 없다.

(2) 국내

(a)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우리 문학으로 돌아와서, 교과서에서 빼 놓지 않는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운수 좋은 날을 읽고 소설 배경의 근대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1920년대 하층 노동자의 삶을 날카로운 관찰로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다. 일제 치하 서울 안에 사는 인력거를 끌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던 인력거꾼 김침지의 운수 좋은 하루를 담아내면서, 당시 도시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암시하고 있다. 작품 속 대화에 뿐만이 아니라 지문에서도 속되고 거친 말투를 여과 없이 드러내며 그 시대 하층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첫 번에 삼십전, 둘째 번에 오십전 - 아침 댓바람에 그리 흥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움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침지는 십 전짜리 백동화 서 폰, 또는 다섯 폰이 찰깍 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킁킁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信條)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 모로도 못 늙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흑이 불거지도록 누가 빼앗을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뻥긴다,
배가 켜진다고 눈을 홑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운수 좋은 날〉 中

주인공 김침지는 어느 날 인력거 일을 하며 갖는 행운과 반대되게 비극을 겪는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불행한 삶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며 보다 더 효과적이게 나타낸다. 우리는 운수 좋은 날을 읽으며 주인공 김침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김침지의 하루를 경험한다.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없는 상황을 책으로 겪으며, 우리는 주인공에게 공감하고, 주인공을 평가하고, 교훈을 받고 토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를 디딤판, 거울로 삼아 성장할 수 있게 된다.

(b) 김유정의 〈동백꽃〉

김유정의 〈동백꽃〉은 향토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청소년들에게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당시 문학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⁶ 동백꽃은 농촌을 배경으로 지주, 마름의 딸과 소작인 아들의 풋풋한 애정을 해학적으로 그려 낸 작품으로, 토속어와 향토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앞의 〈운수 좋은 날〉과 마찬가지로 소설 중 사용되는 단어는 당시의 말투를 드러내며 지주와 소작농이 있던 시절의 대화를 상상하며 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해 준다. 우리가 책으로 하여금 당시 언어생활을 알게 하는 데에 탁월하다.

성동경동 나무를 지고는 부리나케 내려왔다.

⁶ 네이버 지식백과 동백꽃 (천재학습백과 미리보는 중학문학)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굽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고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헛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짚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펍 쏟아졌다. 나뭇지게도 벗어놀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막대기를 뺨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동백꽃〉 中

또한 이 소설은 배경으로 하여 순박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동백꽃의 향기에 실어 전한다. 소작농의 아들과 마름의 딸이라는 계층적 차이와 적극적인 행동의 점순이와 제대로 대들지도 못하는 소극적이고 순박한 성격의 소유자 ‘나’의 차이가 더해져 효과를 더하고 있다.

당돌하고 적극적이며 집요하기까지 한 점순이와 무뚝뚝하고 눈치가 없는 ‘나’, 그런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점순이의 행동이 작가 특유의 익살스러운 문체와 어우러져 읽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소설을 읽는 사람이라면 모두 점순의 마음을 쉽게 알아차린다. 하지만 어리숙한 ‘나’는 끝까지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점순이의 지나친 행동 또한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림1 -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는 장면〉

그리고 뒀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펍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동백꽃〉 中

같은 시기의 소년, 소녀가 느낄 수 있는 풋풋한 감정을 동백꽃의 향기에 비유하여 독자에게 전하는 장면은 소설을 읽는 독자 또한 각각 소년, 소녀가 되어 간질간질하고 풋풋한 느낌을 동백꽃의 향기와 함께 느낄 수 있다. 현진건의 문학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감정을 느끼고 등장인물에 이입하여 공감하는 것이다. 좋은 감정을 읽는 이로 하여금 퍼뜨리는 것, 이는 문학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결론

지금까지 인류에게 큰 영향을 준 문학과 예시를 살펴보았다. 문학은 책으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을 바꾸고 큰 계기와 자극을 주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 유익한 영향을 준다.

특정 시대상을 드러내어 과거를 본보기로 삼게 해주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여러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인류에 큰 충격을 안겨주는 문학도 존재하지만 또 한 사람으로 태어나 경험할 수 없는 상황들과 곧 경험할 것들을 미리 체험한다.

문학의 사전적 의미는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형식적으로 언어를 갈고 닦아 문학 작품으로 표현 하는 데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내용적으로 문학 작품을 통해 감동을 느끼고 문학적 정서를 체험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가 문학을 즐기며 얻는 유익한 점들이 바로 문학의 아름다움에 포함되어 있는 갈래이다.

자신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뛰어넘은 고민이 있거나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문학을 감상하여 충족시키고 문학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느껴야 한다. 문학의 아름다움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 위대함과 유익함은 이루 설명할 수

없기에,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문학으로부터 가져 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반드시 경험하고 소유하길 바란다.